

## 한밤마을을 통해본 농촌주거지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Characteristic in Rural Residential Area: A case of Hanbam Village

심근정\*  
Sim, Keun-Jeong

정응호\*\*  
Jung, Eung-Ho

####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spatial organization of a traditional rural community and its characteristics, the case of *Hanbam* village located in the north of *Daegu* cit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space and public space in the residential area of *Hanbam* village is obvious, and these two spaces are organically related each other by means of road. These spaces have some spatial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 such as center, hierarchy and sequence. 2. The private space consists of a residence module and a farming area in the settlement, and it is clearly formed by the firm fence of rocks and by surrounding roads. Fruit-bearing trees such as *Pyrus pyrifolia*, *Cornus officinalis*, *Diospyros kaki*, *Juglans sinensis* are planted at the boundary. And most of residences are composed of a building, a inner court and farming fields. 3. The public space for the community mainly functions as 'a meeting place' for residents, and consists of recreational spaces, ceremonial spaces, community facilities, and social facilities. Among these, *Jeong-ja*(pavilion), *Seong-an Soop*(forest) and *Dae-chong*(building for common use) are of great cultural value as important traditional spaces. 4. Two kinds of road are commonly found in the village; spontaneously generated one and planned one. This is straight inner streets and access paths to the village, and that is curvilinear alleys which are connected to *Dae-chong*, the core of village. Also stone walls and climbing plants on them are major elements of village landscape.

Keyword : Hanbam village, Rural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of Spatial Organization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의 농촌은 주민들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개인보다는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풍쳐진 모습으로 그들만의 삶이 용해 여과된 형태로 주거단위가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주거공간은 변모하기 시작하여 한국동란과 새마을 사업을 통하여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나 변동은 농촌내부의 교육수준의 향상, 생산 양식의 변화 등 일련의 내생적 변동에 의해 유도된 것도 많지만, 국가의 정책이나 공업화, 도시화 등과 같은 외생적 변동에 의해 보다 급격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만갑, 1973;192). 또한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변화와 구조의 해체원인은 일반적으로 전체 사회변화의 일환으

로서 설명될 수 있고, 농촌자체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내생적 요인들이 급격한 농촌 인구의 변동, 기술혁신, 새로운 사회 및 경제 조직의 채택 등도 전체 사회의 발전 내지는 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김채운 외, 1986;216).

비록 현대의 문화 문명이 그 뿌리를 과거에 두고 변형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전통성, 고유성 및 민족문화를 도외시한 개변이나 개조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농촌은 비교적 전통성이 많이 남아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시와는 달리 성장 변화의 과정에서 현 시대의 작위성(作爲性)이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자족적 생활공동체(최재석, 1975)인 농촌주거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속학, 지리학, 건축학, 조경학 등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농촌주거지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는 김덕현(1983)과 박종환(1986)이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고찰

\*정회원, 계명대학교 낙동강환경원 연구원, 농학박사

\*\*정회원,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환경계획전공 전임강사, 공학박사

한 바가 있고, 임봉진(1982)과 문병용(1989), 박성준(1989)등은 농촌주거지의 건축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성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대상지만 달리하여 주로 농촌주거지의 형성시기부터 공간의 발전 또는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주거지경관이 변한 시기의 공간구성요소와 공간구성의 특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농촌주거지공간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전통성을 잃지 않은 대율리(이하 전통지명인 한밤마을로 칭함)를 대상으로 전통농촌의 주거지공간이 어떠한 요소로서 구성되었으며, 구성상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날로 새롭게 변화하고 전통성을 상실해 가는 농촌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전통농촌마을보전·복원계획수립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전통농촌주거공간으로 특징이 많이 남아있는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로 하였다. 연구대상지 선정 이유는 첫째, 군위군에서 전통민속마을 지정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최근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 후보지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수상할 만큼 풍속이나 전통적 생활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고, 둘째, 전통농촌주거공간으로서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고 그 특성이 뚜렷하며, 셋째, 약 250여 호가 넘는 대규모의 농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적, 경제적 여건상 관련자료수집과 현장답사조견이 원활한 연구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마을사람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집약된 공간인 마을의 주거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거지란 좁은 의미의 집락 또는 취락으로 대지, 길, 공공시설, 생산시설용지, 대지와 관련된 텃밭 등의 소경지의 총체를 말한다(楠本侑司, 1974)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측조사, 인터뷰·관찰조사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조사에서는 기존 관련선행연구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대상지인 한밤마을에 대한 각종 행정도서와 문집, 문보 등을 수집·분석하였고, 인터뷰·관찰조사는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측조사는 1/50,000의 지형도를 1/1,200으로 확대하여 1/1,200의 지적도에 중첩(Overlap)한 다음, 이를 기본도(Basemap)로 하여 주거지의 공간들을 현장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공간의 변화가 매우 심한 곳

이나 대규모의 녹지공간은 직접 측량을 실시하였다.

인터뷰조사는 주민 중 유지나 촌로(村老) 등을 방문하여 같은 사항이나 내용을 반복하여 공간의 변화나 현상 등을 파악하는 델파이(Delphi)법을 사용하였다(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88), 관찰조사에서는 공간의 실제 이용이나 운용 행위를 종점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들 조사를 통해 마을 주거지공간의 구상특성과 구성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 II. 대상지 개관

한밤(大栗)마을은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의 팔공산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팔공산을 정점으로 하여 시루봉, 파계재, 한티재 등이 병풍상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의 북쪽이 트인 분지형의 미을이다. 한밤마을은 예전에는 대구에서 군위군 효령을 거쳐 부계로, 다시 부계에서 제2석굴암으로 가는 4 km의 지점에 있었으나, 현재는 대구로 바로 이어지는 2차선 아스팔트 도로의 개설로 교통이 훨씬 단축된 대구생활권에 속해 있다.

한밤마을은 서기 950년경에 신천 강씨가 살고 있었는데, 남양홍씨인 홍난이란 선비가 이주해 오면서 일야(一夜)라 부르던 마을명을 대야(大夜)로 개칭하였다. 그 후 1390년 고려시대 말 문하사인이었던 경제선생 홍노가 대율로 개칭하였고(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4), 경제선생은 고려가 망하자 이곳에 들어와 도연명이 은거하면서 지낸 곳을 모방하여 한밤마을 일대의 골을 율리(栗里)라 하였다고 한다. 대율(大栗)은 부근의 여러 율리 가운데서 가장 동네가 크므로 불려진 이름으로 큰 마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장동, 상대동, 동대동, 서대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대율동이라는 명칭으로 군위군 부계면에 편입되었고, 1991년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대율리가 대율1·2리로 분리되었다.

현재 한밤마을에는 농가 163호, 비농가 104호가 있으며, 인구 740명(남자 367명, 여자 383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면적은 554.64 ha(2,063필지)로 그 중 임야가 332 ha(59.9%)이고, 전·답·과수원 등의 경지가 104 ha(18.7%), 하천·제방·구거·유지 등의 속리시설이 41 ha(7.4%)이고, 그 외 대지, 도로, 학교용지, 묘지, 잡종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지의 지형은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쪽보다는 북쪽이 낮고, 주거지의 동서에 남북 방향으로 서원천과 대율천이 흘러 성안숲 근처의 미을 입구에서 합류한다. 새로운 2차선의 도로가 개설된 지역은 기존의 대지들보다 크게는 10 m 가량의 고저차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지 내 학교용지의 표고는 해발 220 m로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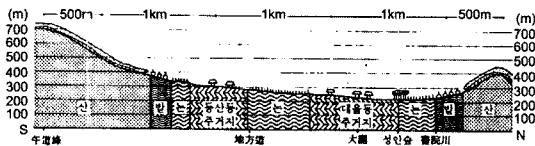


그림 1. 한밤마을의 단면도

는 그보다도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한밤마을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상의 특성을 보면,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여 소하천과 논 경작지가 위치하고, 그 주변에는 밭, 과수원 등의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공간들을 에워싸고 있는 임야는 짧게는 300 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III. 주거지 공간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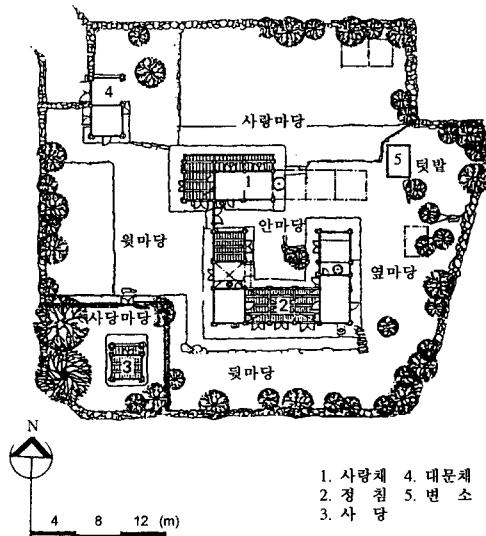
주거지 공간은 크게 개인공간과 공동체 공유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공간이라 함은 단위주거공간과 주거지내의 개인경작지를 말하고, 공동체 공유공간은 공동시설이나 공동시설지를 말하며, 휴식 및 놀이공간, 의례 공간, 생활부대공간, 가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성준, 1986).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의 구성요소파악에 있어 개인공간, 공동체 공유공간과 가로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개인공간

##### 1) 단위주거

한밤마을의 단위주거들은 대부분 건물과 마당, 텃밭 등으로 이루어지며, 인접한 단위주거나 길 또는 담장에 의해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 이 공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건물로서 대체로 안채는 남향보다도 북향과 동향이 많았으며, 서향인 단위주거도 가끔 나타났다. 마을의 주향이 북쪽인 독특한 지형적 상황(II장 참조)에 영향을 받아 북향의 단위주거는 조산인 오도봉에서 안산에 이르는 직선축상에 위치한 종가나 정자, 일반주택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들 단위공간의 특징은 주 출입구가 북쪽 또는 동쪽이 많다.

북향을 한 단위주거의 안채는 남쪽 방향으로 마루 또는 방에서 문을 낸 경우가 많고, 뒷담과 안채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햇빛을 적게 받는 북향 가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그림 2 참조). 한편, 마당과 뒷골목과의 높이 차가 큰 단위주거에서는 안채 뒤에 화계를 둘 것으로 지형조건에 자연스럽게 대응하고, 아울러 생활에 필요한 야채를 심거나 식물을 관상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았다.



자료 : 大邱直轄市, 1991·7, 八公山(續集), p.199

그림 2. 上海宅의 공간구성

단위주거의 마당은 각종 행사, 놀이, 작업 등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기능적으로는 건물기능의 보완이나 가사 노동의 연장으로 이용되는데, 대체로 건물의 안채 앞에 안마당이 있으며, 집이 넓은 부잣집이나 종가에는 뒷마당, 옆마당, 사랑마당, 윗마당, 사당마당 등이 있다(그림 2 참조).

특히 사당마당은 마당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조상의 위폐를 모신 사당의 공간적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당의 한쪽 모퉁이나 담장의 측면에는 감나무, 산수유, 배나무, 호도나무 등의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데, 이는 관상의 목적과 과실수확이라는 이중성을 지닌 것으로 이기철 등(1990)의 연구결과와 같다.

단위주거내의 텃밭은 마을의 입지를 잘 나타내주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가옥에는 텃밭이 있다. 주로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물은 콩, 가지, 오이, 배추, 상치 등의 야채류와 깨, 고추, 파 등의 양념류 채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마당이 넓고 여유가 있는 단위주거에서는 화단이 조성되어 각종 초화류가 심겨져 있다. 또한, 단위주거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가옥의 지붕에는 호박이나 박, 수세미 등의 만경성 채소가 심겨져 농가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켜주고 있다.

##### 2) 주거지 내의 경작지

주거지내의 경작지는 단위주거의 텃밭이 확장된 형태로 재화 생산위주의 밭 경작지와 중간 형태를 이루는 경작지라 할 수 있으며, 채소류를 생산하는 채원과 사과 등을 수확하는 과수원이 많다. 특히, 과수원의 경우

과수나무 아래 많은 밭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공간의 경계는 단위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담장이나 도로 및 인접한 단위주거로 경계부에는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고, 특히 돌담으로 된 경계부에는 호박과 많은 만경류가 어우러져 주거지경관을 한층 자연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하고 있다. 주거지내의 경작지는 중심부나 북쪽보다 주거지 외곽이나 남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일반주택이 평坦하면서도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형성되기 쉽고, 그 인근이 직접 논으로 둘러싸이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애워싸기 쉬움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 2. 공동체 공유공간

### 1) 휴식 및 놀이공간

한밤마을에 나타나는 주요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는 성안숲, 어린이놀이터, 근린체육공원과 대청(大廳, 이는 일반 전통가옥에서 보이는 마루의 개념이 아니라 연구 대상지의 전통건축물에 대한 지역적 고유명사로 지칭되는 것임) 등이 있다.

그 중 성안숲은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대규모의 녹지로서 풍수의 비보적 개념으로 조성된 인위적인 숲으로 연못과 섬이 함께 있다. 성안숲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수종은 수고 10m 이상, 근원직경 40cm 이상의 소나무로서 성밖의 수림과 도로 전너 근린체육공원의 수림을 합하면 150그루가 넘는 방대한 양이다. 이밖에도 5m 이상의 주요 교목으로는 마을의 동제시 당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팽나무를 비롯하여 은행나무, 느티나무, 고용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있다(그림3 참조). 이를 수목 중 아까시나무를 제외하면 모두 고유수종으로서 하목으로 많이 자라고 있는 아까시나무는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안숲 안에는 이외에도 진동단과 홍천뢰장군의 충의비, 홍영섭의 효자비가 있어 휴식공간을 이루면서도 마을의 성역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즉, 이곳은 마을 내에 산재해 있는 정자나 재실과 함께 내면적으로는 마을주민의 정신적 근거지를 이루고 있고, 문중회의 또는 마을집회의 장소 및 주민의 휴식처로서 기능도 하고 있었다.

어린이놀이터는 마을회관 앞 공간에 있는데, 시설물이 노후되고 관리가 소홀하여 이용 또한 매우 저조하다. 성안 숲 우측 길 건너편에 위치한 근린체육공원은 근년에 문화체육부에서 국민체육기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마을주민보다는 인근 도시나 지역의 휴가객이나 소풍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놀이터와 근린체육공원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인위적인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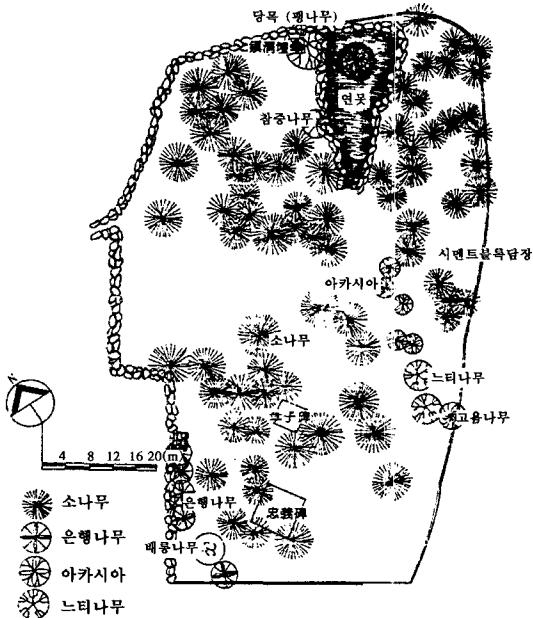


그림 3. 성안숲의 공간구조

격이 강한 놀이공간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매력이 주변의 자연적 환경요인보다도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 공간이 한쪽에 너무 편중된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주거지내의 중요한 공간으로는 주거지 중심부에 위치한 대청이 있다. 이곳은 원래 대율동종서당으로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현지의 대청건물은 1705년에 중수된 것으로 당시의 중수 산량문의 말미을 보면,

伏願上樸之後爰居爰處無怠無荒家顧生之蔚興戶眞儒之輩出(엎드려 원하건데, 상량한 후로 이곳에 거하기도 하고 치하기도 하여서, 나태함과 황폐함이 없을 것과 가문마다 석학이 울연히 일어나고, 집집마다 진유가 배출되게 하옵소서)

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군위문화원, 1992) 학사(學舍)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제 초기에는 약 4년간 신학문을 강의하는 사립학원이 이곳에서 개강되기도 하였고, 그 뒤인 1960년대 초엽에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 이곳에 양재학원(재봉기술을 가르쳤다고 함)을 세워 약 3년간 고육을 시행하다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기도 하였다.

현재 대청은 주로 여름철의 휴식이나 담소를 위한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마을 단위의 행사나 모임을 위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마루의 전면에 넓은 작업장과 빙터가 있는데, 이는 단위공간들을 유기적으

로 엮어주는 공동마당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부락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2) 의례공간

마을의 의례공간은 마을의 성격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서낭당, 장승, 동제당 등의 신앙적 속성이 강한 공간 및 서원, 제실, 정자, 사당 등의 문중을 중심으로 한 공간, 충효비, 열녀비, 선정비 등의 비각공간, 그리고 상여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밤마을의 주거지공간에 나타나는 이들 공간으로는 진동단, 각종 정재건축과 비각, 상여집 등이 있다. 진동단은 매년 음력 정월초에 마을의 동제를 지내는 곳으로 원래 마을의 형국이 선형이기에 솟대 형태였으나, 현재는 석단과 석주, 석조로 되어있고, 그 동쪽에는 근원적 경이 70cm나 되는 큰 팽나무가 당목으로 있었으나 그 최근에 고사하였다. 이것은 마을의 성안 숲 내에 있으며, 주위의 각종 비각과 함께 마을의 성역을 이루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공간요소들은 주로 마을 입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전에는 이곳이 마을의 어귀로서 길 또한 이쪽으로 통했음을 밝혀준다. 또한, 이곳은 실질적 마을의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역할을 하느 공간으로 주거민의 공동체의식 강화와 마을회의, 축제기능을 가진 신앙성이 강한 전통민속공간이다.

문중 소유의 의례공간인 사당과 정자, 재실 등을 원래 주거지 내 대청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나, 현재는 전 구역에 걸쳐 산재해 있다. 이중 사당은 종가나 소종가 등의 단위주거 내에 있고, 정자나 재실은 다른 하나의 대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정자나 재실건축의 일반적인 형태는 기와로 된 맞배 지붕인데, 가운데 마루를

두고 양옆에 방을 둔 구조로 되어 있으며(활원정과 경절당 제외), 건물은 북향이 많고, 동향 또는 남향도 나타난다.(표 1 참조)

이들 건축물의 출입구는 지붕형태를 갖춘 대문이 있어 이렇다 할 출입문의 형태가 없는 일반 단위주거의 대문과는 뚜렷한 차이가 나며, 부지의 경계부에는 단위주거와 비슷하게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위에는 유실수가 심겨져 있다. 이들 문중의 공간들은 실제적으로는 선현의 제사(경절당과 동산정에서는 불천위 제사를 지냄)나 문중회의, 학문토론, 연중 빈번했던 접객이나 노인의 담소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상징적으로는 문중의 결속과 일체감 및 자긍심을 표현하고 있는 조상승배의 유교영향을 많이 받은 남성 중심의 전통공간이다.

### 3) 생활부대공간

한밤마을은 250여 가구이기 때문에 많은 생활부대시설들을 필요로 하며, 이 마을에 나타나는 주요 생활부대시설로서는 빨래터, 공동우물과 농업에 필요한 각종 창고와 정미소 외에 도시적인 성격이 강한 식당이나 상점, 여관 등이 있다.(그림 4 참조)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온 빨래터와 공동우물은 주로 주거지 외곽에 분포하고 있다. 공동우물은 마을의 형국과 관련되어 외곽지에 조성되었는데,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공동우물은 모두 6개소가 있었다. 그 이후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단위주거에 개인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거의 집집마다 자동 펌프가 설치된 개인우물이 조성되어 있어 공동우물에서 만남, 대화나 정보교환 등은 크게 줄어들었다. 빨래터는 주거지 좌우에 남북으로 흐르는 개울이나 소

표 1. 정자 및 재실 건축 현황

亭 齊Name	地番	所有現況	向	建立時期	面積(건평/대지)	목적/내용	기타
敬義齊	747	缶林洪門	南向	1879年	12/251坪	洪汝鎮公을 기리기 위한 齊舍	宗 派
景節堂	866	缶林洪門	北向	1888年	70/593坪	缶林洪氏 宗宅과 敬齊先生의 廟宇	宗 派
景檜齊	692	缶林洪門	東向	1956年	11/124坪	洪善承 汝基公 弟兄를 追慕하기 위한 齊舍	中 派
龜陽亭 (瞻復齋)	801	全州李門	北向	1946年	--/150坪	李涿公을 追慕하기 위한 齊舍	
東山亭	854	缶林洪門	北向	1910年	50/567坪	洪宅夏公을 기리기 위한 亭舍	宗 派
東林齊	841	義興芮門	北向	1968年	23/596坪	義興芮氏 始祖公을 기리기 위한 齊舍	
東川亭	765	缶林洪門	東向	1911年	12/256坪	洪龜瑞公을 기리기 위한 齊舍	宗 派
山南齊	797	永川崔門	東向	1914年	12/217坪	崔竹窩公을 寓慕하기 위한 齊舍	
儼然堂	911	缶林洪門	北向	1919年	15/90坪	洪啖公을 寓慕하기 위한 齊舍	西面派
守吾亭	698	缶林洪門	南向	1987年	28/50坪	洪一欽公을 追慕하기 위한 亭舍	中 派
蓍存齊	842	缶林洪門	南向	1883年	--/347M <sup>2</sup>	洪晰公을 追慕하기 위한 齊舍	莘里派
精一齊	906-1	缶林洪門	北向	1977年	36.26/149M <sup>2</sup>	洪南臯公을 기리기 위한 齊舍	西面派
活源亭	1357-17	缶林洪門	四方	1987年 중수	4/50坪	溪巖處士 洪公을 기리기 위한 亭舍	中 派



그림 4. 생활부대시설의 분포

하천변을 따라 형성되었으나, 주택내의 우물 조성과 세탁기 등의 전자용품 보급으로 이용이 현저히 줄어 개울에 형성된 것은 폐쇄되었거나 방치되어 있다.

농업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창고 및 정미소와 상점, 식당, 여관 등의 기타시설은 주거지의 북쪽이나 지방도로변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상점이나 식당 등의 상업시설은 최근(80년대 중반 이후)들어 급증하였는데, 이는 제2석굴암 지역의 관광지화 및 그에 따른 도로의 확장 포장이나 관광 휴객의 증가 때문이라 사료된다.

### 3. 주거지 내 가로공간

생활에 의해서 반영되어 나타나는 외부공간의 형태 중 마을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로는 마을, 동네, 이웃 등 각각의 생활에 의해서 단계별로 형성된 공간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선적 요소인 동시에 외부공간이다. 한밤마을의 가로는 크게 인위적으로 조성된 가로와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로로 나눌 수 있으며, 마을 가로의 현황과 분포 상태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현재 주거지내의 대부분 골목길은 담장에 의해 명확해진다. 담장의 재료는 크고 재질감이 뚜렷한 자연석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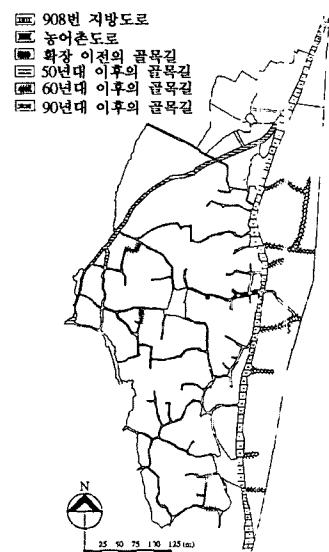


그림 5. 주거지 내 길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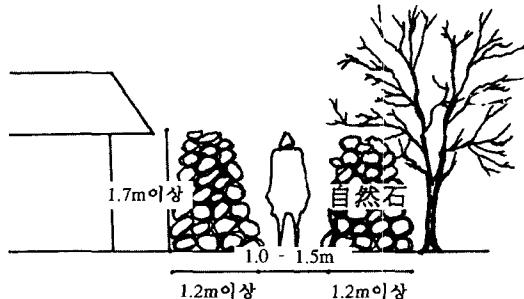


그림 6. 담장 개조이전의 골목길

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과 잘 어울리며, 각종 식생이 많이 자라고 있어 주거지의 경관을 한층 자연스럽게 한다. 한편, 주거지 내의 대부분 골목길은 大栗洞中書堂, 즉 大廳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대청이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위에 종택이나 정자 등 중요한 동선요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대청을 중심으로 하여 각 주택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그물망 그조로 되어있고, 길의 폭은 돌담의 축조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마을의 골목길은 담의 축조시기와 관련이 깊은데, 전혀 축조를 하지 않은 길, 5~60년대 주민 스스로 골목길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 길, 새마을운동에 영향을 받아 확장된 길과 최근 전통마을 지정을 위해 확장 조성된 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종 사업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거지내 골목길은 모두 3개소에 총 연장 20 m 정도로 돌담에 담쟁이넝쿨 등의 만경류와 푸른 이끼가 있

어 마을 담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충분하며, 대체로 2사람이 동시에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다(그림 6 참조).

그리고, 주민 스스로 확장시킨 5,60년대의 골목길과 새마을운동에 영향을 입은 골목길은 주거지내 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운기나 소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노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 남쪽부분의 길이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군위군에서 전통마을 지정을 위해 돌담을 새로 쌓으면서 확장되거나 '새마을' 조성시 형성된 길은 주거지내의 골목길 가운데에서 가장 넓으며, 아직 담장에는 각종 식생이 다양하지 않아 최근에 축조된 것임을 알게 해 준다. 폭은 2.5m 이상이 대부분으로, 넓은 곳은 소형차가 교행할 수 있다.

#### IV. 주거지 공간의 특성

주거지를 이루는 공간요소로 개인공간, 가로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진 공동체 공유공간은 마을의 크기나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공간구성요소들의 조직과 관계가 지니는 의미나 원리도 주변 여건이나 마을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공간특성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전형적인 공간구성방법의 하나인 중심성은 공간이 어떤 요소로 둘러싸여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생기는 한계나 가장자리의 크기(거리)는 공간을 점유하는 인간의 심리적 필요성 또는 실제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일한 필요성 혹은 목적에 의해 구분 지워진 일정한 범위를 하나의 영역으로 볼 때, 인간은 그를 중심으로 거리에 의해 몇 개의 층으로 구분된 영역을 가진다. 이들 영역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자연환경과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은 물적 형태를 구성하는 그대로 반영된다.

위계성은 공간구성상의 우선도라 할 수 있다. 위계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요소 혹은 비교될 수 있는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크기, 형상, 위치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예외적인 크기, 독특한 형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의 공간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위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정무웅, 1984).

그리고 공간은 연속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즉, 공간의 경험은 연속적이고,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며 공간의 내적 생명은 움직임과 공간의 관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은 서로 격리된 듯하면서도 모두 연속된 관계(연계성)를 가지고 있다. 주거지공간에서 공간의 연계과정은 축과 길과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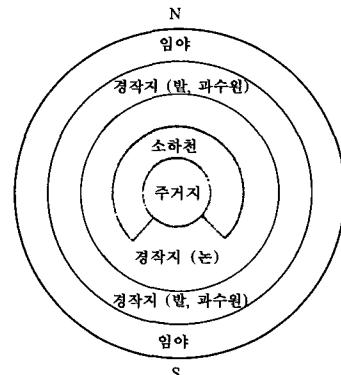


그림 7. 한밤마을의 토지이용

공간 전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연계성은 공간의 축을 이루고 분화된 영역의 연결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밤마을의 주거지공간을 중심성, 위계성 및 연계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 1. 중심성 측면

한밤마을에서 주거지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지형적 특성과 그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거지 주변에는 경작지와 하천이 있고, 그 주변 부에는 임야 등의 산이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주변이 전답 등의 경작지로 둘러싸인 경우, 단위주거들은 중심부를 향하여 구심성의 응집력을 가지는데, 한밤마을의 주거지도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그림 7참조).

주거지 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토지이용의 유형은 주산 방향으로의 진입 축을 중심으로 중심부에 종가와 정자, 대청이 있고, 그 주변부에 일반단위주거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종가나 정자, 대청 등의 중심공간에서 주거지가 사방으로 확장되어 나갔음을 알려주고 있다.

단위주거공간의 분포상으로 볼 때, 종가나 대청 등의 중요시설이 마을가운데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주거지가 동심원 구조로 발전하지 못하고 농어촌도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지형과 토지여건 등으로 단위주거가 더 이상 확장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종가를 포함한 중심공간의 실제 이용이나 의식의 중심지는 대청이다. 대청은 종가와 정자 등 마을의 정신적인 중심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이들 공간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도 한다. 그리고, 주거지 주변부에 위치한 일반 단위주거와 중심부를 이루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은 주로 대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의 실질적 중심공간이라 볼 수 있다.

단위공간을 이루는 영역은 주로 담장이나 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단위주거를 중심으로 할 경우 담장이

나 대문을 경계로 밖은 주변이 된다. 또한, 단위주거에서 중심을 이루는 곳은 건물로서 이곳은 주거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이다. 단위주거의 건물체는 지위나 경제력의 정도 및 공간의 기능이나 이용목적에 따라 안채, 사랑채, 부속사, 사당 등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생활정도나 지위가 높을수록 많은 건물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변의 텃밭이나 마당 등도 일반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위계성 측면

한밤마을 주거지공간의 위계는 공간요소들간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위주거의 위계는 거주자의 지위나 경제력의 정도, 건물체의 위치 및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내부공간은 마당이나 채원 등의 외부공간보다 위계가 높으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은 부속사나 기타 건물보다도 위계가 높다. 그리고, 종가나 소종가의 사당은 단위주거공간에서 승화공간(昇華空間)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60년대 이전 소작인이나 머슴이 함께 살고 있을 때에는 이들이 거주한 공간은 집주인들이 사는 공간보다 낮은 위계를 점하였다.

단위주거들 사이의 위계는 종가, 부잣집 및 여타의 주거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종가나 부잣집들은 주로 주거지에서 일찍 정착하여 여타의 주거에 비해 안정된 경제 기반을 이루어왔고, 대부분의 일반 단위주거는 분가나 경제적 종속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주거의 위계는 성씨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부림홍씨는 가장 먼저 정착을 한 씨족으로 여타의 성씨를 포용하면서 공동체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마을 내에서의 발언권 및 경제, 인구의 수적인 면 등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단위공간의 위계는 단위공간의 성격, 이용정도나 이용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단위주거와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시설은 단위주거보다 위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동단이나 당목, 성안숲 등은 마을 주거지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동우물, 빨래터, 마을회관 등은 이용면에서 마을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단위주거는 이용대상으로 주로 가족이나 친지, 이웃의 방문이 대부분이며, 공간의 이용규모도 개인대지나 건축물 등 담장 안으로 한정되어 있다.

가로에 대한 위계는 이용빈도나 폭 등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제일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다음은 주거지의 중심공간, 즉 대청으로 향하는 길이고, 그 다음은 대청에서 각 단위주거로 향하는 길이다. 그리고, 길과 길을 이어주는 샛

길은 가장 하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길의 위계는 주거지내 길의 확장과 담장의 축조 및 개조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밤마을길의 위계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 3. 연계성 측면

한밤마을의 축을 이루는 연계관계는 단위공간의 연결로서 주로 주거지 핵심공간의 흐름과 일치하는데, 그 전개는 마을입구 - 진동단 - 종가/사당 - 대청/정자 - 조산인 우도봉이 되며, 이러한 축 흐름에서 중심이 되는 곳은 종가이다.

단위주거간의 연계는 주로 골목길에 의해 나타나며, 골목길은 흥미와 변화를 가지고 단위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한 단위주거의 입구(주로 대문)에서 시작되는 길은 주로 담장에 의해 한정되는데, 길은 담이 지나고 있는 변화나 울동성에 따라 같이 변화를 하면서 다른 단위주거의 입구부를 연결해 주거나 보다 넓은 길과 만나면서 연계공간을 형성하거나 공동마당에 흡수된다. 마을길 중에서 샛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되지 않는 골목길은 폭이 좁아 다른 어떤 길보다 폐쇄적인 움직임을 주며, 이들 길도 보다 큰 길을 만나면서 트인 개방감을 맞게 되고, 극적인 변화와 함께 연계공간을 형성하여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단위주거에서 공동체 공유공간으로의 연계과정은 주거입구(대문) - 좁은 길 - 넓은 길 - 공동시설이다.

이러한 연계과정은 공동시설이 외곽에 많이 분포하는 한밤마을의 주거지에서는 여러개의 연계공간을 형성하면서 목적지로 유도하게끔 한다. 또한, 이 과정은 주변의 경관요소와 자연적 변화에 따라 흥미와 울동감, 개방성과 폐쇄성을 주면서 생명력있는 연계성을 갖게 해준다. 단위주거에서 마을의 입구인 진동단으로 향하는 공간의 연결과정도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게 한다. 이 하나의 공간은 공동체적 공간으로서 마을공간의 핵심인 주거지공간을 이룬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전통농촌인 한밤(大栗)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주거지의 공간구성요소와 특성을 살펴본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밤마을의 주거지공간은 개인공간과 공동체 공유공간이 뚜렷이 나타나며, 이들 공간은 길을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 공간들은 중심성, 위계성 및 연계성의 공간구성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 마을 전체에서 경제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중심이 되는

곳은 위계가 높고, 연결의 통로 및 고리가 되는 종가를 중심으로 대청 일대였으나, 현재는 마을의 중심이 그 기능에 따라 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는 마을회관이나 상점들이 입지하고 있는 908번 지방도로이며, 마을 주민의 결속력을 다지는 중심지는 동제를 지낼 때는 진동단 또는 성안숲이고, 마을 회의가 열릴 때는 대청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 중심지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곳은 경회제, 종가가 위치한 대청 부근이다.

주거지공간의 구성요소로서 개인공간은 단위주거와 주거지 내 경작지로 구분된다. 이들 개인공간의 경계는 돌담과 가로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경계부에는 사과나무, 배나무, 산수유, 감나무, 호도나무 등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데, 이는 과실수확과 관상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단위주거는 전물, 마당 및 텃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채는 마을의 향을 따라 북향과 동향이 비교적 많았다. 북향인 단위주거는 오도봉에서 안산에 이르는 직선축상에 위치한 종가나 정자, 일반주택에서 많으며, 대개 일조량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넓은 뒷마당과 화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체 공유공간은 주민들의 만남의 장으로서 휴식 및 놀이공간, 의례공간, 생활부대공간 및 사회시설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주거지 곳곳에 분포하는 정자 및 재실과 마을 입구에 해당되는 성안숲, 주거지의 중심에 위치한 대청은 중요한 전통문화공간으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랜드마크(landmark)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성안숲은 최근 휴가객의 증가로 인한 이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마을 주민을 위한 장기적인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 주거지내의 길은 자연발생적인 길과와 인위적으로 계획된 길로 나뉘어진다. 인위적인 길은 직선 형태로 '새마을'의 길과 지방도로가 여기에 해당되며, 자연

발생적인 길은 곡선 형태로 대부분의 골목길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 길은 대체로 마을 중심지인 대청으로 이어져 있다. 또한, 마을의 길은 담장의 축조시기와 관련이 깊으며, 기존 돌담과 거기에 자라는 이끼류나 덩굴성 식물은 주거지를 한층 더 자연스럽게 하는 중요한 경관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돌담은 인근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고 한밤마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1. 경상북도 (1991) 경북마을지 - 중편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4) 경상북도지명유래총람
3. 군위문화원 (1992) 군위문화유적지
4. 김덕현 (1983) 씨족부락의 형성과정과 입지 및 유교 문화 경관,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김재운 외 (1986) 사회학개론, 서울대출판부
6.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88) 건축 도시계획을 위한 조사연구방법
7. 대울국민학교 학교 연혁지(副本)
8. 문병용 (1989) 마을의 정주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박성준 (1986) 농촌건축의 공간구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부계면 내부자료 (1979) 지명유래조사
11. 이기철 외1인 (1990) 농촌 자연집락의 공간구조와 녹지체계, 경북대논문집 - 자연과학 49
12. 이만갑 (1973)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 출판부
13. 임봉진 (1982) 동족부락의 공간형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장동수 (1990) 전통마을 한밤(대울) 경관의 의미 해석, 서울시립대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 논문
15. 정무웅 (1984) 한국전통건축 외부공간의 계층적 질서에 관한 연구, 흥의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6. 정진원 (1991) 한국의 자연촌락에 관한 연구(형성과 형태를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최재석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8. 한필원 (1991) 농촌 동족마을 공간구조의 특성과 변화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 楠本侑司 (1984) 農村地域における集落の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1),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340